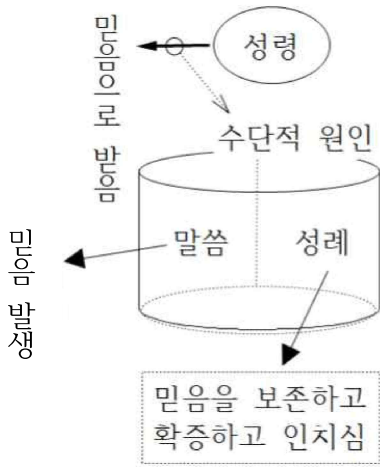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67문-제68문) : 성례(sacrament)란 무엇인가? (2)

최민호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1. [Review §.65-66] 성례와 믿음과의 관계



- ① 믿음을 발생시키는 원저자(original author)는 성령님  
 믿음을 얻게 되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복음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
- ② 말씀을 통하여 발생된 믿음이 성례를 통하여 보존되고  
 확증되고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례에  
 참여하는 신자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이 허락됨)  
 cf. 중세교회의 성례주의(sacramentalism)
- ③ 성례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믿음으로  
 성례에 임하게 될 때, 성례는 바른 시행이 된 것임.  
 신자가 받는 정당한 성례는 그들 자신의 참된 믿음과 회개.

2.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란 어떠한 경우인가?

- (1) 성경에 쓰인 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도대로, 예식들을 순결하게 준수하는 것
- (2) 믿음과 회개를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정회원(세례교인)

3. 성례는 무엇(what)을 누구(to whom)에게 어떻게(how) 주는가?

- (1) 그리스도와 그가 소유한 모든 영적인 유익들(benefits) ⇒ 신령한 것들(spiritual things)을,
- (2) 참된 믿음과 회개를 하는 신자에게,  
 ↳ mark of true faith and repentance ⇨ “의심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짐”  
 ↳ 적고, 미약하고, 불명확한 믿음도 가지 있음.  
 ⇒ (계속적인 기도) 믿음이 강해지도록 간구
- (3)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 주심.  
 ↳ 성례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 없으면(불신자, 불경건자), 신령한 것들을 받지 못함

4. 말씀과 성례의 관계

- (1) 공통점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단 한 번의 제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키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
- (2) 상이점 ⇨ 말씀은 읽고 들으며(설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발생시키고, 확증한다.  
 성례는 느끼고 보고 맛보는 보여지는 말씀(visible Word)이다.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성례는 오직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고, 1차적으로 발생된 믿음을 보존, 확증하는 것이 성례.
- (3) 관계성 ⇨ 말씀은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성례는 말씀이 없이는 효력이 없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

5. 성례의 종류 : 오직 2가지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례: 세례와 성찬)

- ① 중세교회 7성례 : 견진성사(confirmatio), 고해성사(penance), 신품성사(ordination),  
 중부성사(extreme unction), 혼인성사(matrimony)  
 + [세례(baptism), 성찬(Communion)]
- ② 신약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오류 ⇨ 비밀(μυστήριον)을 모두 “성례(sacramentum)”으로 번역.
- ③ 교회의 시스템 속에 신자의 삶을 묶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공로를 약화 ⇨ 믿음보다 성례가 중요